

예비영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 개발을 위한 인식 및 요구도 조사

김래은¹, 안미영^{2*}

¹유원대학교 영재보육학과 조교수, ²유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The Survey of Perception and Needs on Development of Lecture to Promote Creativity·Personality of Pre-service Teachers

Rae-Eun Kim¹, Mi-Young Ahn^{2*}

¹Professor, Division of Gifted Child Care and Education, U1 University

²Professor, Division of Social Welfare, U1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영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 개발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4학년 16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에 대한 인식' 3문항과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 개발에 대한 요구도' 7문항에 대한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자료분석은 기술통계를 통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은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였고, '창의·인성 강좌의 개발과 적용'의 지원을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가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절반 이상의 예비교사들은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를 수강하겠다고 하였고, 2과목, '1학기 3시간 10주'가 가장 적절하며, '창의성 교육요소 중 성향적 요소'를 많이 요구하였다. 또한, 그들은 '다양한 분야의 융합형 수업'을 많이 요구하였으며, '영화와 음악'의 교수매체가 가장 적절하며, '포트폴리오 평가'를 많이 요구하였다.

주제어 : 예비영유아교사, 창의성, 인성, 창의인성교육, 요구도 조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and needs on development of lecture to promote creative·personality of pre-service teachers. The subjects were 161 students in 4th grad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3 items of 'recognition of creativity·personality lecture' and 7 items of 'demand of development for creativity·personality lecture'. The data was analyzed frequency and percentage by descriptive statistics. In the results, first, most of pre-service teachers recognized the importance on development of creativity·personality lecture, and support of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reativity·personality lecture'. They recognized that creativity·personality lecture was effective. Second, more than half of them responded that they would take creativity·personality lecture, and this lecture was most appropriate 2 courses and 3 hours 10 weeks per semester. They demanded a lot of propensity element among creativity education elements, convergence classes in various fields, teaching medium for 'movie and music', and 'portfolio evaluation'.

Key Words : Pre-service Teachers, Creativity, Personality, Perception, Demands

*Corresponding Author : Mi-Young Ahn(aldud8726@u1.ac.kr)

Received July 2, 2019

Revised July 31, 2019

Accepted August 20, 2019

Published August 28, 2019

1. 서론

현대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나 기업체에서 요구되는 인재상 역시 실무형인재에서 다양한 학문과 기술들이 융합되어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 융합형인재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창의·인성은 21세기 미래인재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1, 2]는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기본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유아기단계에서부터 창의성과 인성 계발을 최우선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3~5세 연령별 누리과정[3]에서도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의 일환으로 교육학계에서도 융합인재양성을 위해서 교과목 구분이 확실한 기존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차별화된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4]는 창의·인성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전공교육과정과 통합된 창의·인성 강좌가 필요하고, 대학생들의 전공 및 학년에 따른 차별화된 창의·인성 강좌 및 교육시스템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특히, 예비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의 개발 및 운영은 예비영유아교사의 교육적 측면 뿐만 아니라 미래교육의 수혜자인 영유아들에게 창의·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예비영유아교사가 받는 교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교사의 교수실천으로 이어지고, 이는 영유아의 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5]. 따라서 창의·인성을 고루 갖춘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먼저 예비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창의·인성교육’이란 창의·인성교육과 인성교육의 독자적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둘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창의·인성의 발현을 촉진하고 인성과 사회문화적 가치와 풍토를 조성하며,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까지 겸비한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철학 및 교육전략을 의미한다[6]. 이에 창의·인성의 두 역량이 서로 상호보완적이며, 이 역량을 배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창의·인성 강좌는 현 시점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창의·인성 강좌는 구조적인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즉, 이는 엄선된 교육내용과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들이 설정된 교육철학관, 목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7].

국내의 영유아교사 및 예비영유아교사 대상의 창의·인성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치원교사들의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태 및 요구도에 대한 연구로는 유

아인성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실태 및 요구분석[8], 유아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유치원교사의 인식 및 지도실태[9], 유치원교사의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인식[10,11]를 포함하여, 유치원 교사의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행 연구들[12-14] 등이 있었다.

선행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 교육현장의 영유아교사들은 대부분 창의·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을 하고 있으며, 창의·인성교육 활동의 실행 역시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창의·인성교육과 기존의 창의·인성교육 또는 인성교육과의 차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형성되어있지 않으며,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절한 교육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12]. 또한, 교육목표를 넘어서 교수방이나 관련 교수매체나 자료의 부족으로 창의·인성교육을 실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15].

직전교육인 대학의 교육과정에서조차도 대학생의 창의·인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반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대학생의 창의·인성 강좌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창의·인성교육의 기본개념 중 미래지향성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고, 창의·인성교육의 구성요소 중 성향적 요소를 가장 많은 학생이 요구하였으며, 인성교육의 구성요소는 대인관계능력을 도덕적 판단력보다 더 많이 요구하였다[16].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은 3학년보다는 4학년이 높았고, 학교현장실습과 보육실습을 모두 마친 학생이 정기적인 관찰실습을 마친 학생보다 인식이 높았다[17].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초·중교사들의 기대와 요구를 분석한 결과, 교사들은 창의·인성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 필수 능력으로 인식하였으며, 창의·인성교육이 인자정의정서적 측면 모두 도움이 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 인재, 인성 등 다양한 측면에 효과가 있으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인성교육을 직접 경험한 교사들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나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19]. 특히, 교직이수 학과에서조차도 창의·인성 강좌나 교육과정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예비영유아교사 대상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요구도를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를 효과적,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먼저 예비

영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해 그들을 대상으로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에 대한 인식과 창의·인성 강좌의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수매체, 평가방법 등의 요구도를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예비영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예비영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에 대한 요구도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북경북대구부산대전에 위치한 7곳의 4년제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 16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별 충북의 예비영유아교사는 20명, 경북 28명, 대구 35명, 부산 50명, 대전 28명으로 분포되어있다. 예비영유아교사의 성별은 남학생 7명과 여학생 154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보육실습 및 유치원 현장실습을 완료하고 졸업을 앞둔 상태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에 대한 설문지는 대학생 대상의 창의·인성교육의 요구도 조사에 대한 선행연구들[16-18]을 기반으로 문항의 내용을 본 연구에서 개발하였다. 문항 구성은 크게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에 대한 인식'과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에 대한 요구도'로 구성되었으며,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에 대한 인식'은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관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인식,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효과에 대한 인식의 3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에 대한 요구도'는 창의·인성 강좌의 수강 여부, 창의·인성 강좌의 적절한 교과목 수, 창의·인성 강좌의 실시기간 및 시간, 창의·인성 강좌의 회기, 창의·인성 강좌의 교육내용, 창의·인성 강좌의 교수법, 창의·인성 강좌의 교수매체, 창의·인성 강좌의 평가방법 등의 7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 연구절차

1차 작성된 인식 및 요구도 설문지는 문항의 적절성, 실

시 방법, 소유 시간 및 문제점 등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교육과 3학년 15명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2일부터 3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유아교육과 3학년 학생 15명에게 예비조사의 목적과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에 대한 설문문항을 상세히 설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본 연구자가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에 대한 문항내용을 예비영유아교사들과 검토하면서 의문점을 직접 물어보고 그 의문점에 대해 연구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한 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회수된 내용에 따라 항목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수정·보완된 설문지 내용은 설문지 양식에 관한 내용,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개념과 각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더 보완하였으며, 창의·인성교육 전문가 대학교수 3인에게 내용타당도 검사를 받은 후 최종 설문지 문항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예비영유아교사의 예비조사와 전문가 타당도 검사를 통해 수정·보완된 최종 설문지는 2017년 11월 10일부터 12월 13일에 걸쳐 충북·경북·대구·부산·대전의 5개 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4년제 대학 7곳을 선정하였으며,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180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170(94.4%)부였다. 이 중 설문지의 응답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부실 기재된 설문지 5부를 제외한 총 161(89.4%)부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검사 시간은 총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예비영유아교사의 창의·인성 강좌에 대한 인식과 창의·인성 강좌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통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창의·인성 강좌에 대한 인식

3.1.1 창의·인성 강좌에 대한 중요도 인식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강좌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perception of creativity-personality lecture

Item	N	%
① I am very interested.	7	4.3
② I am interested.	70	43.5
③ It is normal.	73	45.3
④ I do not care.	11	6.8
⑤ I have no interest at all.	0	0.0
⑥ other	0	0.0
total	161	100.0

Table 1과 같이,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중요도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73명(45.3%)으로 가장 많았고, ‘관심이 있다’가 70명(43.5%), ‘관심이 없다’가 11명(6.8%)의 순이었으며, ‘매우 관심이 많다’가 7명(4.3%)로 가장 적었다.

3.1.2 창의인성 강좌를 위한 지원에 대한 인식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강좌를 위한 지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perception for support of creativity-personality lecture

item	N	%
① recognition education on creativity-personality lecture through school curriculum	24	14.9
② combining creativity-personality lecture with learning and task of major subject	22	13.7
③ improving the educational environment, supporting available materials and teaching media	32	19.9
④ instruction for teachers of creativity-personality lecture	18	11.2
⑤ active promotion of local education office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3	1.9
⑥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reativity-personality education of preservice Teachers	61	37.9
⑦ other	1	0.6
total	161	100.0

Table 2와 같이, 창의인성 강좌를 위한 지원에 대한 인식은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인성 강좌의 개발과 적용’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61명(37.9%)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환경 개선, 활용 가능한 기자재 및 교수매체 지원’이 32명(19.9%), ‘교과를 통한 창의인성 강좌의 인식교육’이 24명(14.9%), ‘전공교과의 학습 및 과제에 창의인성 강좌를 결부시킴’이 22명(13.7%), ‘창의인성 교수자 교육’이 18명(11.2%), ‘교육부 지역교육청의 적극적인 홍보’가 3명(1.9%)의 순이었으며, 기타가 1명(0.6%)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3.1.3 창의인성 강좌에 대한 효과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perception of effectiveness of creativity-personality lecture

item	N	%
① It will be helpful.	29	18.0
② It will help.	102	63.4
③ I do not know.	28	17.4
④ It will not help.	2	1.2
⑤ It will not help at all.	0	0.0
total	161	100.0

Table 3과 같이,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102명(63.4%)로 가장 많았고,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가 29명(18%), ‘잘 모르겠다’가 28명(17.4%)였으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2명(1.2%)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3.2 창의인성 강좌에 대한 요구도

3.2.1 창의인성 강좌의 수강 여부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수강 여부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needs of attendance on creativity-personality lecture

item	N	%
① I will take classes.	85	52.8
② I will not take classes.	9	5.6
③ I do not know.	67	41.6
total	161	100.0

Table 4와 같이,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수강 여부에 대한 요구도 조사 결과, ‘수강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85명(52.8%)로 가장 많았고, ‘잘 모르겠다’가 67명(41.6%)이었고, ‘수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9명(5.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2.2 창의인성 강좌의 교과목 수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교과목 수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The needs of numbers of subjects in the creative and personality education lecture

item	N	%
① 1 course	18	11.2
② 2 courses	90	55.9
③ 3 courses	40	24.8
④ 4 courses	10	6.2
⑤ others	3	1.9
total	161	100.0

Table 5와 같이,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교과목 수에 대한 요구도 조사 결과, 2과목이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90명(55.9%)로 가장 많았고, 3과목이 40명(24.8%), 1과목이 18명(11.2%), 4과목이 10명(6.2%)이었으며, 기타가 3명(1.9%)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3.2.3 창의·인성 강좌의 실시기간 및 시간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실시기간 및 시간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The needs of duration and time of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lecture

item	N	%
① 1 semester 3 hours 8 weeks	25	15.5
② 1 semester 3 hours 10 weeks	66	41.0
③ 1 semester 3 hours 15 weeks	29	18.0
④ 1 semester 4 hours 15 weeks	9	5.6
⑤ 2 semester 2 hours 30 weeks	15	9.3
⑥ 2 semester 3 hours 30 weeks	8	5.0
⑦ over three semesters	9	5.6
total	161	100.0

Table 6과 같이,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실시 기간 및 시간에 대한 요구도는 '1학기 3시간 10주'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66명(41%)로 가장 많았고, '1학기 3시간 15주'가 29명(18%), '1학기 3시간 8주'가 25명(15.5%), '2학기 2시간 30주'가 15명(9.3%), '1학기 4시간 15주'와 '3학기 이상'이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각각 9명(5.6%)의 순이었으며, '2학기 3시간 30주'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8명(5%)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3.2.4 창의·인성 강좌의 회기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회기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The needs of sessions of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lecture

item	N	%
① less than 8 sessions	33	20.5
② 9 to 11 sessions	66	41.0
③ 12 to 14 sessions	39	24.2
④ 15 to 17 sessions	16	9.9
⑤ over 18 sessions	7	4.3
total	161	100.0

Table 7과 같이,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회기에 대한 요구도는 '9~11차시'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66명(41%)로 가장 많았고, '12~14차시'가 39명(24.2%), 8차시 이하가 33명(20.5%), '15~17차시'가 16명(9.9%)의 순이었으며, '18차시 이상'이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7명(4.3%)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3.2.5 창의·인성 강좌의 교육내용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The needs of education content of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lecture

item	N	%
① basic concept of creativity education	22	13.7
② creativity education element : cognitive element	34	21.1
③ creativity education element : propensity element	53	32.9
④ creativity education element : motivational element	41	25.5
⑤ personality education element	11	6.8
total	161	100.0

Table 8과 같이,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내용에 대한 요구도는 '창의성 교육요소 중 성향적 요소'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53명(32.9%)로 가장 많았고, '창의성 교육요소 중 동기적 요소'가 41명(25.5%), '창의성 교육요소 중 인지적 요소'가 34명(21.1%), '창의·인성교육의 기본개념'이 22명(13.7%)의 순이었으며, '인성 교육요소'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11명(6.8%)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3.2.6 창의·인성 강좌의 교수법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교수법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Table 9. The needs of teaching methods for creative and personality education lecture

item	N	%
① lecture-oriented class(class focused on creativity and personality)	3	1.9
② discussion and discussion classes through group activities	31	19.3
③ online(cafе, administration, smart phone usage), offline classes	19	11.8
④ fusion type classes in various fields	64	39.8
⑤ announcement of reports through audiovisual classes and literature surveys	7	4.3
⑥ production of work through cooperative learning(actual practice-oriented class)	37	23.0
total	161	100.0

Table 9와 같이,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교수법에 대한 요구도는 '다양한 분야의 융합형 수업'이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64명(39.8%)로 가장 많았고, '협동학습을 통한 작품 제작'이 37명(23%), '조별활동을 통한 토론 및 토의수업'이 31명(19.3%), '온오프라인 수업 병행'이 19명(11.8%)의 순이었으며, '시청각 수업 및 문헌조사를 통한 보고서 발표'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7명(4.3%)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3.2.7 창의인성 강좌의 교수매체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교수매체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Table 10. The needs of teaching medium of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lecture

item	N	%
books (picture books)	① not suitable	119 73.9
	② suitable	42 26.1
art(sculpture, painting, exhibition)	① not suitable	83 51.6
	② suitable	78 48.4
theater plays	① not suitable	94 58.4
	② suitable	67 41.6
specific physical material	① not suitable	109 67.7
	② suitable	52 32.3
produced parish	① not suitable	126 78.3
	② suitable	35 21.7
movie	① not suitable	67 41.6
	② suitable	94 58.4
music(concerts, musicals, operas)	① not suitable	70 43.5
	② suitable	91 56.5
advertising	① not suitable	120 74.5
	② suitable	41 25.5
newspapers, magazines	① not suitable	136 84.5
	② suitable	25 15.5
game machine	① not suitable	124 77.0
	② suitable	37 23.0
smart device	① not suitable	134 83.2
	② suitable	27 16.8

design (fashion, visual)	① not suitable	106 66.8
	② suitable	55 34.2
activity paper	① not suitable	136 84.5
	② suitable	25 15.5
other	① not suitable	158 98.1
	② suitable	3 1.9
total	-	161 100.0

Table 10과 같이,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교수매체에 대한 요구도는 다양한 교수매체 중 영화와 음악(음악회, 뮤지컬, 오페라)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비적합하다'고 응답한 예비교사보다 더 많았다. 나머지 교수매체는 모두 '적합하다'고 응답한 예비교사보다 '비적합하다'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2.8 창의인성 강좌의 평가방법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평가방법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Table 11. The needs of evaluation method of creativity education lecture

item	N	%
① descriptive evaluation	6	3.7
② assessment of essay method (expressing students' thoughts on a specific topic)	37	23.0
③ student peer evaluation through cooperation and discussion learning	28	17.4
④ standardized inspection tool evaluation (creativity inspection, personality inspection)	31	19.3
⑤ performance evaluation	6	3.7
⑥ portfolio evaluation	53	32.9
⑦ others	0	0
total	161	100.0

Table 11과 같이,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평가방법에 대한 요구도는 '포트폴리오 평가'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53명(32.9%)로 가장 많았고, '에세이 방식 평가'가 37명(23%), '표준화 검사도구 평가'가 31명(19.3%), '협력 및 토론학습을 통한 학생 동료 평가'가 28명(17.4%)의 순이었으며, '서술형 평가'와 '수행평가가 각각 6명(3.7%)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유아교육과 4학년 161명을 대상으로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인식

및 요구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영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에 대한 중요성은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이 높게 인식하였다. 이는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강좌에 대한 인식 수준은 3학년 보다는 4학년이 높았고, 학교현장실습과 보육실습을 모두 수행한 학생이 관찰실습을 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구결과[17]와 비교해 볼 때, 두 실습을 모두 완료한 4학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의 경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초·중교사들이 창의성과 인성을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보고 창의·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결과[18]를 지지한다.

창의·인성함양을 위한 강좌의 지원은 '창의·인성 강좌의 개발과 적용'을 중요하다고 인식한 예비교사들이 가장 많았고, '교육환경 개선, 활용 가능한 기자재 및 교수매체 지원', '교과를 통한 창의·인성 강좌에 대한 인식교육' 등의 순으로 예비교사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전공교과의 학습 및 과제에 창의·인성 강좌를 결부시킴', '창의·인성 교수자 교육', '교육부 지역교육청의 적극적인 홍보' 등은 소수의 예비교사만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교사들은 창의·인성 강좌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교실 확보 등의 재정적인 교육환경 측면의 지원을 해야한다고 한 연구결과[18]를 지지한다. 특히,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연수와 창의·인성교육을 직접 경험을 통해 교사들과의 원활한 소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많은 예비교사들이 창의·인성 강좌의 개발과 적용을 가장 중요한 지원이라고 보았다는 점은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된 강좌가 부족하며, 그들의 요구를 반영한 강좌의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창의·인성 강좌의 효과는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는 교사의 창의·인성 강좌가 인지적·정서적 측면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인재, 전인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18]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유치원교사 대부분이 창의·인성교육을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는 결과[12], 기관유형에 관계없이 유치원 교사들은 창의·인성교육을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는 결과[13]를 지지한다.

둘째, 예비영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에 대한 요구는 강좌에 대해 반 이상의 예비교사가 '수강할 것이다'라고 응답하였고, 창의·인성 강좌의 교과목 수는 2, 3과목 정도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많았으며, 적절한 회기는

'9~11차시' 정도가 가장 많았고, 실시 기간 및 시간은 '1학기 3시간 10주'라고 요구한 예비교사가 가장 많았다. 이는 학교에서 창의·인성 교육과정이 별도로 2과목 정도 개설될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결과[13]와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예비영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해 이들의 요구도를 고려한 맞춤형 창의·인성 강좌를 개발해야 함을 시사한다.

창의·인성 강좌의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는 창의성 교육 요소 중 '성향적 요소'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가장 많았고, 동기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많은 반면, '창의·인성교육의 기본개념'과 '인성 교육요소'는 적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연구결과[16], 비교해 볼 때, 창의성교육의 구성요소 중 성향적 요소를 가장 많은 학생이 요구하였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인성교육은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의 각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두 교육 간의 유기적 결합이 중요하다고 본 점을 고려할 때[6], 창의·인성 강좌의 개발 시 예비영유아교사의 인성 교육요소를 어떻게 접목시켜 효과를 높일지는 추후 심각하게 고려해 볼 만한 결과이다. 따라서 최근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예비영유아교사들에게 창의·인성 강좌를 적용할 때,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의 목표가 통합된 형태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교수법에 대한 요구는 '다양한 분야의 융합형 수업'이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가장 많았고, '협동학습을 통한 작품 제작', '조별활동을 통한 토론 및 토의수업', '온·오프라인 수업 병행'의 순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창의·인성교육은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 그리고 창의와 인성의 유기적 결합이라고 볼 때[20], 창의·인성교육의 기본방향에 맞게 융복합교육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1]. 따라서 대학에서의 창의·인성 강좌를 개발할 때, 예를 들어, 교과 간의 융합, 하위요소 간의 융합, STEAM 등의 융합형 교수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창의·인성 강좌의 교수매체에 대한 요구로 가장 많은 선호를 보인 교수매체는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음악회, 뮤지컬, 오페라, 실문자료 등이 있었으며, 창의·인성 강좌의 평가방법에 대한 요구는 '포트폴리오 평가'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가장 많았고, '에세이 방식 평가', '표준화 검사도구 평가', '협력 및 토론학습을 통한 학생 동료 평가'를 예비교사들이 요구하였다.

이에 예비영유아교사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인식 및 요구도 조사결과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대학의 창의·인성 강좌는 일회성 특강이나 단기 비교과 프로그램이 아닌 2, 3과목 정도의 11차시, 30시간정도가 적절하다. 둘째, 별도로 독립적인 강좌를 운영할 경우 학년 및 수준별로 학습자 맞춤형 교과목을 개설 및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창의성교육과 인성 교육을 별도의 교과목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유기적 결합을 통한 두 영역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의 '다양한 분야의 융합형 교수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창의·인성 강좌 운영 시 예비영유아교사들이 선호하는 교수매체로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 영상매체 및 예술매체를 활용한 강좌 및 교수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평가방법으로는 강좌 운영 시 지필식 시험보다는 포트폴리오 평가를 주로 활용하되, 에세이 방식의 평가, 표준화 검사도구를 활용한 평가, 학생동료 평가방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함께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과 추후 연구의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창의·인성 강좌의 인식 및 요구도만을 조사한 기초연구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적용한 창의·인성 강좌의 개발 및 적용한 후 교육적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전국의 4년제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구를 조사하였지만 그 수가 적고 전국본포가 아니라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및 보육관련 학과들을 포함하여 연구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지역별, 또는 저학년과 고학년을 비교 분석하여 학년 및 수준별 창의·인성 강좌의 요구도 조사 및 강좌 개발을 위한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a). *A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for improving the basic course of kindergarten*.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2]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b). *Creativity education program for strengthening basic curriculum of kindergarten*.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3]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3). *3-5 years old Nursing course book*.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4] H. J. Kim, J. Y. Lee, & S. J. Eom. (2017). A comparative study on creativity accroding to major of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re-designers and pre-engine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6), 19-27.
DOI : 10.14400/JDC.2017.15.6.19
- [5] H. Wenglinsky. (2002). How schools matter: The link between teacher classroom practices and student academic performance. *Education Policy Analysis Archives*, 10(12). Retrieved November 2, 2005.
- [6] Y. L. Mun. & I. S. Choi. (2010).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for the cultivation of creative talent to practice caring and sharing*. Seoul: Korea Science Foundation.
- [7] K. W. Jeon. (2015). *Creativity and Education*. Seoul: JeongMinSa.
- [8] S. J. Kim & K. H. Chang. (2012). A study in teachers' understanding of character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ch & Review*, 6(6), 27-48.
- [9] H. Kim (2012). Kindergarten teachers' recognition on creativity education and reality of creativity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 32(1), 109-129.
- [10] M. T. Lim, S. Y. Sung & E. H. Sung (2015), Teacher's understanding about creativity education in the kindergarte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iy for Gifted and Talented*, 14(1), 245-266.
- [11] M. J. Song & H. Kim (2010). Chid care teachers' perception and actual conditions on young children's creativity education. *Korean Journal of Children's Media*, 9(2), 161-185.
- [12] C. H. Part & S. H. Kim (2012). Kindergarten teachers' concern and implementation of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Korean Education Inquiry*, 30(2), 127-143.
- [13] I. S. Choi & J. S. Kim (2014). Kindergarten teachers' perceptions and practices in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9(3), 73-98.
DOI: 10.16978/ecec.2014.9.3.004
- [14] H. J. Suh & H. J. Kim (2016). Teachers' perception & current state of early childhood creativity·character educaton. *The Journal of Korean Teachr Education*, 33(3), 345-374.
DOI: 10.24211/tjkte.2016.33.3.345
- [15] Y. S. Nam. (2013). *The effects of science eduation emphasized on the creativity and character upon the creativity and science-related attitude*. P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ter thesis. Pusan.
- [16] H. J. Kim, H. S. Lee, J. J. Youn, S. J. Eom & J. K. Lee

- (2015). A study on college students' demands for creativity and personlaity education as part of the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Indian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8(88), 29-36.
- [17] S. S. Lee. (2014). A study for pre-service teacher's recognition on creativity and personlaity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18(3), 161-183.
- [18] J. S. Oh, B. Kang, S. Y. Part, S. M. Im, J. U. Park, H. H. Won. & H. B. Kim. (2014). An analysis of teachers' expectation and need for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 Education*, 26(6), 1342-1351.
DOI : 10.13000/JFMSE.2014.26.6.1342
- [19] M. S. Kim & J. W. Ko (2014). The influence of students' learning engagement on the perceived creativity competency,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Gifted and Talented*, 13(1), 84-106.
DOI : 10.17839/jksgt.2014.14.1.83
- [20] S. M. Choi (2013). A different way of understanding creativity:character education, *Korean Elementary Moral Education Society*, 41, 285-314.
DOI : 10.17282/ethics.2013.41.285
- [21] K. H. Lee & S. H. Part (2014). The comparison of university student's creativity and creative leadership to promote the creativity education in university.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Gifted and Talented*, 13(3), 59-83.
DOI : 10.17839/jksgt.2014.13.3.59

김 래 은(Rae-Eun Kim)

[정회원]



- 2011년 8월 : 경성대학교 생활문화학과 아동보육전공(이학박사)
- 2013년 8월 : 경성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6년 4월 ~ 현재 : 유원대학교 영재 보육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유아교육, 창의성교육, 교사교육, 교수매체
- E-Mail : versus486@u1.ac.kr

안 미 영(Mi-Young Ahn)

[정회원]



- 2015년 2월 :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유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상담심리, 청소년 프로그램, 사회복지
- E-Mail : aldud8725@u1.ac.kr